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2월 ~ 3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트럼프, FTA, 보호 무역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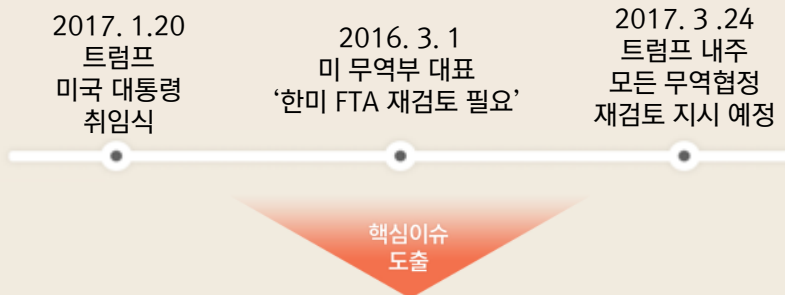
주요 키워드 :

트럼프, FTA, 보호무역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트럼프, 한국 보호무역주의의 희생양 삼나”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트럼프 한국을 보호무역주의 희생양 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 한미 FTA의 재협상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미국 싱크탱크 인 헤리티지 재단 에드윈 플루나 이사장은 “한미 FTA는(트럼프의 통상 정책)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 농업계가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쇠고기 분야와 쌀 분야가 있다.

한국은 2008년 4월 광우병(BSE)의 특정 위험 부위 (SRM)을 제거한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인정했으나,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미국과 재협상을 진행하여 30 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보류하고 30 개월 미만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시 ‘(30 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 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았었다. 최근 미국 쇠고기 수출 협회에 따르면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의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8년 15.2 %에서 점차 증가해 2016년에는 42.6 %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30 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쌀 문제이다. 현재 한국 내 미국의 쌀 쿼터 분량은 연간 5 만 t으로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한국은 2015년부터 관세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쌀의 관세 인하도 의제가 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높다. 한미 FTA에서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 철폐 대상으로 한 상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농업 경쟁력이 강한 국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설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제조업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농업 경쟁력이 약한 국가의 경우 무역적자를 이유로 농산물시장을 더 압박 해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국 역시 쌀과 쇠고기 등 미국이 강점으로 하는 품목 분야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계는 트럼프가 후보시절 언급한 한·미 FTA 관련 보고서를 입수해 향후 보호무역주의에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가장 재협상 가능성이 높은 쌀은 관세화 협상에서 식용쌀 수입확대와 점유율에 대한 문서보장 등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 부문도 한우 품질 강화, 유통 단계 단순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 마블링 위주의 등급제도 개선, 환경 친화형 로컬 푸드 마케팅 등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